

# 여수시 마이스산업 중심도시 위상 다진다

(MICE·국제회의 등 유치)

지난해 경제 파급효과 497억  
을 900건 40만명 유치 목표  
예산 늘리고 인센티브 지원  
포럼·웹투어 등 적극 마케팅

여수시가 마이스(MICE·국제회의와 전시회를 주축으로 한 유망 산업)행사 유치 성과로 관광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

19일 여수시에 따르면 올해 MICE행사 900건, 방문객 40만 명 유치를 위해 마케팅활동에 돌입하는 등 내실을 다진다는 목표다. 여수시는 올해 역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남해안권 MICE 중심도시의 위상을 확고히 하겠다는 전략이다.

여수시가 지난해 MICE 유치 성과로 거둔 지역경제 파급효과만 마이스 참가자 조서결과 보고서(한국관광공사)기준 497억 원에 달한다.

여수시는 이처럼 마이스 산업이 지역 관광 활성화에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올해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전시 부스가 설치되는 행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새로이 마련했다.

예산도 지난해(2억 5000만 원) 보다 5000만 원 늘려 대규모 MICE 행사 유치



여수세계박람회장 전경.

등을 위한 3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숙박인원 80 명 이상, 회의일수 2일 이상 등 행사규모와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행사에 최대 200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도 계속 추진한다.

여기에 8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예정인 '2018 한국마이스연례총회 및 마켓플레이스'와 '코리아 MICE EXPO'에 참여해 지역 MICE 우수성과 인센티브 등을 홍보하는 한편, 태국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해외 마이스 전시·박람회에도 여수 MICE 유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MICE 산업 활성화를 위한 포럼 개최와 민·관 합동 MICE 초청 웹투어도 분기별로 진행한다.

여수시는 특히 차별화된 MICE 발굴, 육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 가능 섬 관광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외의 마이스 관련기관·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국제해양관광중심도시 이미지 제고와 여수시가 보유한 아름다운 365개의 섬 자원화를 통해 주민 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MICE 행사 참가자들은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마이스 성장을 통한 경제유발효과와 관광활성화 효과가 높은 만큼 이들이 다시 여수를 찾을 수 있도록 손길맞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주철현 여수시장(오른쪽)과 김응수(사)한국MICE협회장이 지난 1월 12일 시청 시장실에서 MICE 산업 육성 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 여수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10명 돌파

위재훈 여성종합나무 대표·최영미(주)영해대표 9·10호

1억 이상 고액기부자 클럽인 여수 지역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10명을 돌파했다.

19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위재훈 여성종합나무 대표와 최영미(주)영해 대표이사가 각각 9·10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됐다.

소사이어티 회원증서 전달식(사진)은 이날 오전 시청 시장실에서 주철현 여수시장과 허정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여수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특히 최영미 대표이사의 가입으로 여수지역 아너 소사이어티도 2쌍이 됐다.

최영미 대표이사의 남편 이대안 여수 메가박스 대표는 지난 2016년 10월 7호 회원으로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

이는 첫 부부 아너 소사이어티 주인공인 자산어보 대표 김경수·차정례 부부에게 이어 두 번째다.

1995년부터 사회복지법인 '나무'를 운영하며 홀몸노인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있는 위재훈 대표는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때가 아니라 할 일을 했을 때 비로소 행복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영미 대표이사는 "항상 어려운 이웃을 위해 베푸는 남편이 자랑스러웠다"며 "이런 남편을 보면서 어느 순간 우리 부부에게 나눴는 삶의 일부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아너 소사이어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설립한 1억 원 이상 고액기부자 클럽으로 전남에서는 69명, 전국적으로는 1793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다.

한편 현재까지 여수지역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은 김경수·차정례 부부, 강재현 여수시의원, 박승관 YC-TEC 회장, 김철의 대신기공 대표, 우종완 동양 대표, 이대안 대표, 박형근 베스코 대표, 위재훈 대표, 최영미 대표이사 등 10명이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 여수 마이스산업 폭풍성장 5년새 규모 7배 이상 커져

히든베이호텔 대형 컨벤션센터 2020년 완공엔 시너지 효과

여수시는 지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뛰어난 SOC(사회간접자본 시설)와 MICE 관련 관광시설 등을 확보 하면서 5년 새 폭풍 성장을 하고 있다.

여수시에 따르면 MICE 산업 규모는 지난 2013년 100건 6만 명에서 2014년 434건(15만 5000여명), 2015년 813건(34만 8000여명), 2016년 873건(39만 6000여명), 2017년 1109건(43만 6000여명)으로 2013년 기준 7배 넘게 커졌다.

이처럼 마이스 산업이 폭풍 성장하면서 여수 관광산업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300만 관광객을 달성해 국내 최고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 쾌거를 이뤘다.

시는 지난 2013년 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 이후 여수관광의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MICE 산업 유치에 본격 뛰어들었다. 시는 세계박람회장 시설과 여수

히든베이, 엠블, 디오션 특급 호텔·콘도 등 8곳 44개 공간에 1만2000여명(국장식 기준)이 동시에 참석할 수 있는 최고 시설의 마이스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여수히든베이 특급호텔이 7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오는 2020년 건립할 예정인 대형 컨벤션 센터(객실 230개·수용인원 1600명)가 완공되면 대형행사 유치에도 큰 힘을 보탬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여수시는 지난 2013년 '여수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시는 또 마이스 산업활성화를 위한 '마이스 인센티브 지원제도 홍보책자'를 매년 국내 학회와 마이스 대행사에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 노력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여수시의 MICE 행사 유치노력으로 올해 역시 대규모 마이스 행사를 연



지난 1월 25일 여수 디오션리조트에서 (주)팜스코의 '2018 사업 전진대회'가 열렸다. <여수시 제공>

달아 개최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주)대우해양조선이 지난 1월 29일부터 6개월 동안 '전 사원 조직활성화 교육 워크숍'을 열고 기수별 총 6900여 명의 사원이 여수를 방문할 계획이다.

앞서 (주)팜스코도 지난 24일부터 1박 2일 동안 디오션리조트에서 직원과 가족 400여 명을 대상으로 '2018 사업 전진대회'를 열었으며 한국산업보건학회 동계학술대회(600여명) 등 1월에만 8000여명의 대규모 마이스 행사를 유치했다.

여수시는 학회·협회 등 대규모 단체 행

사와 함께 올해부터 기업 MICE 행사를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마이스연례총회 참가, KOREA MICE EXPO 2018 전시부스 운영, 민·관 합동 MICE 유치 상담·교류회 개최, MICE 전문가·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유치·홍보 활동에 돌입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만의 차별화된 MICE 인프라와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 남해안권 MICE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 "4대 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 하세요"

여수근로복지공단 유도

여수근로복지공단이 정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정책 활성화를 위한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를 유도한다.

19일 여수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매년 7월 경 실시된 4대 보험 미가입자진 신고를 올해 1월로 앞당겨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확대에 나서고 있다.

올해 정부가 역점 추진중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총예산 3조원으로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 지난 1월부터 오는 3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추진된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

자 1인당 13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인 만큼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 가입이 누락된 중소기업은 이번 신고기간에 안정자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주가 이번 신고기간에 미가입자를 자진 신고하면 고용보험 과태료 면제 혜택을 주고 두루누리 지원 대상 사업장일 경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중 건강보험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50%를 경감해 주고, 4대 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제공한다. 문의 근로복지공단여수지사 061-680-0234.

/여수=김창화기자 chkim@

## 구례, 그랜드 호텔



-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11-2
- 지리산온천 정문 바로 앞, 최고위치
- 대지489평, 건물 768평, 대형객실 40개
- 지하1 지상4층, 엘리베이터 유
- 식당(300명 수용), 커피숍, 단란주점/세미나실
- 케이블카 설치 최우선 지역
- 연 매출 8~10억/순수익 4억~5억 가능
- 감정가 / 시세 - 25억
- 매매 - 20억

## 나주, 2층주택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집마당까지 차량 진입
- 광주에서 40분
- 2월 중순 입주가능
- 시세 - 1억
- 매매 - 7200만원

주인직매 H.010-3605-5000